

어머니의 불안, 양육태도 및 심리적 안녕감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일반아동과 장애아동 어머니 비교를 중심으로

서우경 김도연¹⁾

용문상담심리대학원대학교

본 연구는 일반아동과 장애아동 어머니의 불안, 양육태도, 심리적 안녕감을 비교해보고 이들이 양육 스트레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서울 및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일반 어린이집, 장애통합 어린이집, 장애진담 어린이집, 지역복지관, 사설 치료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일반아동과 장애아동 어머니 24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에 기초하여 최종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아동과 장애아동 어머니 집단 모두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불안과는 정적 상관을 보이고 애정적, 거부적, 긍정적 양육태도와 심리적 안녕감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둘째, 일반아동 어머니는 장애아동 어머니에 비해 긍정적인 양육태도와 심리적 안녕감이 높았고 장애아동 어머니는 일반아동 어머니에 비해 양육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일반아동과 장애아동 어머니의 불안, 양육태도, 심리적 안녕감이 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어머니의 불안과 양육태도는 일반아동과 장애아동 어머니 모두에게서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임이 확인되었다.

주요어: 불안, 양육태도, 심리적 안녕감, 양육 스트레스, 장애아동 어머니

가정환경은 인간이 출생하여 최초로 사회적 접촉을 하면서 인지력·감정·언어·사회성 등 기본적인 인간특성과 그 개인이 속한 사회의 행동양식을 학습해 나가는 곳이다. 특히 어머니는 최초의 교사로서 아동의 초기 경험에 질적·양적 측면에서 아동의 학습경험을 계획·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

한다(민옥기, 2002).

어머니와의 초기관계가 자녀의 발달에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자녀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신체적 피로감을 경험하고 있으며, 자신의 정체감을 유지하는데 불만을 느끼며 생활이 자유롭지 못하다고 느끼는 등 심리적

1) 교신저자: 김도연, E-mail: dykimscho@hanmail.net

인 부담감을 경험하고 있다(조혜승, 1996; Abidin, 1990). 또한 과거에는 자녀가 태어나면 주위의 여러 사람들이 함께 양육을 도와주고 양육과정에서 함께 참여하였으나(길미연, 2009), 현대사회에서는 주위의 도움 없이 어머니 혼자서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아 더욱 어려움을 겪는다. 우리사회는 어머니가 자녀양육을 해야 한다는 전통적인 사고가 지배적이고, 어머니는 자아실현의 욕구와의 갈등을 통해 자녀양육과정에서 양육 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한다고 볼 수 있다(김인숙, 2007). 높게 지각한 양육 스트레스는 역기능적인 양육행동(Abidin, 1990)과 부당한 양육행동(박응임, 1995)을 하도록 작용하고,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양육 스트레스는 부적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영진, 2004). 이렇듯 부모-자녀 체계의 중심인물인 어머니가 과도한 양육 스트레스를 받으면, 부모로서의 역량감에 회의를 느끼고, 자녀에게 권위를 행사할 수 없을 만큼 위축된 행동을 보이며 결국 자녀의 정서적·행동상의 문제를 낳게 됨으로써(Lopata, 1972) 부모-자녀 체계의 긴장감과 부담은 가족 내 하위 체계로 전이되고, 가족체계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려는 연구는 최근까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아동변인으로서, 일반아동의 경우에는 주로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과 관련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아동의 연령, 성별, 장애유형, 장애정도 등과 관련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장애아의 출생은 부모에게 새로운 역할을 요구함으로써 양육에 대해 더욱 높은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대부분의 장애아 부모는 심각한 양육 문제와 갈등에 직면하게 되고, 장애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지식의 부족으로 무기력, 위축, 자기모멸감

을 가질 뿐 아니라 자아충족의 욕구를 박탈당함에 따른 만성적인 긴장감으로 인해 다양한 생리적·심리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이삼연, 1999). 이처럼 자녀의 장애는 부모에게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긴장을 초래하는데, 장애자녀가 인생의 전환기에 이를 때마다 슬픔과 고통이 되풀이되고 심화된다는 점에서 이들이 느끼는 양육 스트레스는 일반적인 양육 스트레스와는 그 양상이 다르다(하수민, 윤종희, 2002). 이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장애아 가족이 정상아 가족에 비해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장애아 부모는 정상아 부모에 비해 이혼율이 높고, 우울, 불안, 좌절, 근심 등 정서적 문제를 지녔을 뿐만 아니라 장애에 대한 주위의 부정적 시각으로 인해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은숙, 1990). 또한 장애아동 어머니는 자녀의 장애를 받아들여야 하는 심리적 고통, 자녀의 반응결여와 발달지체로 인한 실망감과 좌절, 장애아동을 돌보는 데 필요한 심리적·육체적 에너지, 자녀의 미래에 대한 염려 등으로 일반아동의 어머니보다 더욱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고 했다(양귀화, 2001). 그러나 일부 연구에서는 자녀의 장애로 인해 가족의 결속력이 높아지고 더 친밀해지는 등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Singer & Farkas, 1989), 또 다른 연구에서는 장애아동이 있는 가정과 일반아동이 있는 가정을 비교할 때 스트레스 수준에서 별 차이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이영순, 1990).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심리적인 변인 가운데 어머니의 불안은 양육 스트레스와 서로 시간적으로 공통성이 있거나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의존적인 발달을 보여(Hock & Schirtzinger, 1992) 부모역할에 대해 불만족과 역기능적인 가족관계를 형성한다.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 어머니가 불안을 느끼게 되면

양육 스트레스를 더 높게 지각하게 되고(손영지, 2010), 신경증이 높은 집단이 신경증이 낮은 집단에 비해 양육 스트레스를 훨씬 많이 지각한다는 연구결과(길연하, 1996)는 신경증의 하위변인들 중 불안을 느끼는 어머니가 양육 스트레스를 훨씬 많이 지각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불안은 명확한 원인 없이 미래의 위협이나 불행을 미리 걱정하고 염려함으로써 생기는 두려움, 근심, 긴장 등으로 정의되는 감정반응으로 이런 불안이 과하면 미래를 지나치게 비판적으로 보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부정적인 상황이나 사건을 미리 두려워하게 되어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는 등의 부적응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신민진, 2010).

이외에도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심리적인 변인으로 양육태도와 심리적 안녕감이 있다.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태도로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므로 부모의 양육태도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백영숙, 2007; Luster & Okagaki, 1993). Becker(1993)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양육태도는 부모-자녀 관계의 질을 결정해 주고, 자녀의 지적, 정서적, 성격적, 태도적 측면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으며, 유영주, 김경신과 김순옥(2001)은 부모가 자녀에게 수행하는 역할과 수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양육태도에 따라서 자녀의 발달적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부모의 바람직한 역할과 양육태도는 모색되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현대의 부모들은 핵가족화로 인해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녀양육의 직·간접적인 경험이 부족한 채로 자랐고, 성인이 되어 가정을 이루어 자녀를 양육할 때도 일과 가정의 양립이나 경쟁적 교육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자신들의 자녀와 질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시간도 부족하고 바람직한 방법

을 발달시키기 어렵다. 이로 인해 요즘의 부모들은 바람직한 양육태도를 형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이전의 부모들보다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더 많이 겪게 되어 높은 양육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Dunne & Kettler, 2008).

부모가 자녀에게 미치는 양육태도의 영향력은 장애가 있는 아동의 경우 그 영향력이 더 크리라 예상할 수 있다(백설아, 2005). 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Barsch(1968)의 경우 장애아동 부모는 정상아동 부모보다 아동의 기능에 대해 더 비판적이고 높은 기대를 가진다고 하였으며, 최종옥(1982)은 장애 유아 어머니들은 일반 유아를 가진 어머니들 보다 많은 죄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장애 유아를 다른 자녀보다 더 귀하게 대하려 하고 지나친 보호를 하기도 하며 동정적이며 과보호적인 양육태도를 나타내기도 한다고 하였다. 이한우(1999)는 학령전기와 학령기 모두 장애 자녀의 부모가 비장애 자녀의 부모보다 전반적으로 양육태도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고, 이영주(1998)는 장애아동 어머니집단과 정상아동 어머니집단의 양육태도 비교에서 허용적 양육태도에서 장애아동 어머니 집단이 정상아동 어머니 집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애정적, 통제적, 처벌적 양육태도에서는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영진(2008)의 연구에서는 장애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장애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고, 장애 자녀보다 비장애 자녀에게 더 애정적, 덜 거부적, 더 자율적, 더 통제적으로 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아동과 장애아동 어머니를 대상으로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양육태도에 따라 양육 스트레스의 발생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 주목해 봄으로써 양육 스트레스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양육태도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고자 하

였다.

이와 더불어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은 일반아동과 장애아동의 부모들이 겪는 양육 스트레스와 관련해서 각각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동 양육의 일차적인 책임을 담당하는 어머니의 삶의 질 문제가 아동의 장애유무와 상관없이 아동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은 매우 중요하다(최정아, 2010). 문혁준과 이종신(2010)은 어머니의 삶에 만족을 느끼는 정도인 심리적 안녕감이 높을수록,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이 낮을수록, 긍정적인 어머니 역할행동이 높게 나타남을 보고하고 있다. 반면, 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를 다룬 일부 연구들에서는 스트레스가 심리적 안녕감을 설명하는 데 있어 변량이 비교적 적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특성들이나 다양한 심리사회적 측면을 고려한 변인들이 미치는 영향이 관계되어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길연하, 199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다양한 심리적 변인들과 함께 심리적 안녕감이 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연구목적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일반아동과 장애아동 어머니의 불안, 양육태도, 심리적 안녕감, 양육 스트레스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일반아동과 장애아동 어머니의 불안, 양육태도, 심리적 안녕감, 양육 스트레스는 차이가 있는가?

셋째, 일반아동과 장애아동 어머니의 불안, 양육태도, 심리적 안녕감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및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일반 어린이집, 장애통합 어린이집, 장애전담 어린이집, 지역복지관, 사설 치료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만 1세에서 만 7세의 일반아동 어머니 159명과 장애아동 어머니 10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지는 각 기관에 총 292부를 배부하였고 그 중 262부(89.8%)가 회수되었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에서 무응답이거나 불충분한 설문지 13부를 제외하여 총 249부(85.3%)를 연구 자료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개인적 특성을 연령, 학력, 직업, 월평균 소득, 가족구성형태, 혼인상태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표 1에 제시하였다.

어머니의 연령은 만 30~39세가 188명(75.2%)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만 40~49세로 42명(16.8%)이었다. 일반아동과 장애아동 어머니 모두 30대가 각각 116명(77.3%)과 72명(72.8%)으로 동일하게 가장 많았다. 어머니의 학력은 대졸이 100명(39.8%)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전문대졸 또는 대학교 중퇴로 59명(25.5%)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직업은 가정주부(학생포함)가 150명(59.8%)로 가장 높았는데, 일반아동 어머니의 경우 가정주부의 비율이 73명(48.7%), 장애아동 어머니의 경우 가정주부 비율이 77명(77.8%)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월평균 소득과 혼인상태에서도 일반아동 어머니와 장애아동 어머니의 경우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월평균 소득은 300만원 이상이 158명(62.9%)으로 가장 많았고, 200~300만원 이하가 58명(23.1%)의 순이었으며, 혼인

표 1 일반아동 어머니와 장애아동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

구분	일반아동 어머니		장애아동 어머니		전체		
	N	%	N	%	N	%	
연령	만 20-29세	10	6.6	5	5.0	15	6.0
	만 30~39세	116	77.3	72	72.8	188	75.2
	만 40~49세	23	15.3	19	19.2	42	16.8
	만 50~59세	1	0.7	3	3.0	4	1.6
학력	중졸이하	1	0.7	4	4.0	5	2.0
	고졸	38	25.3	21	21.2	59	23.5
	전문대졸 또는 대학교 중퇴	43	28.7	21	21.2	64	25.5
	대졸	55	36.7	45	45.5	100	39.8
	대학원 이상	13	8.7	8	8.1	21	8.4
직업	가정주부(학생포함)	73	48.7	77	77.8	150	59.8
	고용직	1	0.7	1	1.0	2	0.8
	서비스직	8	5.3	2	2.0	10	4.0
	자영업	6	4.0	6	6.1	12	4.8
	일반 사무직	12	8.0	1	1.0	13	5.2
	회사원	37	24.7	9	9.1	46	18.3
	전문직	12	8.0	3	3.0	15	6.0
	기업주 및 고위관리	0	0.0	0	0.0	0	0.0
월평균 소득	100만원 이하	1	0.7	5	5.1	6	2.4
	100-200 만원 이하	13	8.6	13	13.1	26	10.4
	200-300 만원 이하	39	26.0	19	19.2	58	23.1
	300만원 이상	96	64.0	62	62.6	158	62.9
혼인상태	기혼(사실혼 포함)	144	96.0	93	93.9	237	94.4
	이혼	2	1.3	4	4.0	6	2.4
	별거	1	0.7	0	0.0	1	0.4
	사별	0	0.0	1	1.0	1	0.4
	기타	2	1.3	1	1.0	3	1.2
전체	150	100.0	99	100.0	249	100.0	

상태의 경우 기혼(사실혼 포함)이 237명(94.4%)으로 가장 많았다.

표 2에 제시된 일반아동과 장애아동의 특성을 살펴보면, 일반아동의 경우, 남아와 여아의 비율이 각각 75명(50.0%)으로 동일하였다. 아동의 나이는 만 5세가 41명(27.3%)으로 가장 많았고, 만 2세가 27명(18.0%), 만 1세가 23명(15.3%), 만 4세와 만 6

세가 16명(10.7%)의 순으로 분포되었다. 장애아동의 성별은 남아가 68명(68.7%), 여아 31명(31.3%)이며 아동의 나이는 만 4세가 26명 (26.3%)으로 가장 많았고, 만 5세, 7세, 3세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장애유형은 발달지체가 27명(27.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정신지체장애가 22명 (22.2%), 중복장애가 21명(21.0%)으로 많았다. 아동

표 2 일반아동과 장애아동의 일반적 특성

	구분	일반아동		장애아동	
		N	%	N	%
성별	남자	75	50.0	68	68.7
	여자	75	50.0	31	31.3
연령	만 1세	23	15.3	1	1.0
	만 2세	27	18.0	4	4.0
	만 3세	13	8.7	16	16.2
	만 4세	16	10.7	26	26.3
	만 5세	41	27.3	24	24.2
	만 6세	16	10.7	10	10.1
	만 7세	14	9.3	18	18.2
장애아동의 장애유형	자폐장애			6	6.1
	의사소통장애			6	6.1
	학습장애			1	1.0
	정서·행동장애			1	1.0
	발달지체			27	27.3
	지체장애(뇌성마비, 뇌병변 포함)			22	22.2
	기타(다운증후군, 지적장애, 언어지연, 발달지연 등)			15	15.2
장애아동의 장애등급	중복장애			21	21.0
	1급			24	24.2
	2급			9	9.1
	3급			13	13.1
	4급			1	1.0
	장애등급 받은 적 없음			52	52.5
	전체	150	100.0	99	100.0

의 장애등급의 경우 ‘장애등급 받은 적 없음’이 52명(52.5%)으로 가장 많았고, 1급이 24명(24.2%), 3급이 13명(13.1%) 순으로 나타났다.

측정도구

불안척도

어머니의 불안을 측정하기 위해 Spielberger(1970)가 정신장애가 없는 정상 성인의 불안 상태를 측정하는 도구로 제작한 상태-특성불안척도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STAI)를

한덕용, 이창호와 탁진국(1993)이 한국어판 척도로 표준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STAI의 검사구성은 총 40개의 문항으로, 상태 불안(State Anxiety)을 측정하는 20개 문항과 특성 불안(Trait Anxiety)을 측정하는 20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의 상태불안과 특성불안의 신뢰도 Cronbach' α 는 .82와 .82로 나타났다.

양육태도 척도

Schaefer(1959)가 개발한 양육태도 도구를 (Maternal Behavior Research Instrument: MBRI)

이한우(1999)가 번안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부모의 양육태도를 5점 척도로 평정하여 애정적, 통제적, 거부적, 긍정적(자율적) 평가태도로 제한하여 각 영역에 따라 5문항씩 총 20문항으로 측정한다.

4가지 양육태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보면, 애정적 태도를 가진 어머니는 자녀를 민주적이며 수용적으로 대하며 대부분의 일을 자녀와 함께 하고 자녀를 보호하며 애정을 표현한다. 다음으로 통제적 태도를 가진 어머니는 지나치게 간섭하고 간소리가 많으며 권위적인 지시로 자녀가 어머니의 말에 복종하게 하고 자녀에게 많은 제한을 가하며 엄격하다. 거부적 태도를 가진 어머니는 자녀에게 무관심하고 소홀하여 거부적이며 자녀를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긍정적 태도를 지닌 어머니는 자녀의 의견과 권리를 존중하며 자녀 스스로 대부분의 일을 처리할 수 있게 하고, 대부분의 행동에 대해 허용적이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애정적 태도 .59, 통제적 태도 .46, 거부적 태도 .65, 긍정적 태도 .43, 전체척도 .75로 나타났다. 일부 태도유형에서 신뢰도가 낮게 나타났으나 본 척도는 다양한 논문들에서 부모의 양육태도를 측정하는데 임상적 유용성이 높은 것으로 입증된 바 있어 본 연구에서 사용하게 되었다.

심리적 안녕감 척도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을 측정하기 위해 Ryff(1989)의 심리적 안녕감 척도(Psychological Well-Being Scale: PWBS)를 사용하였다. Ryff와 Keyes(1995)가 한국판으로 번안한 것을 다시 김명소, 김혜원과 차경호(2001)가 한국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46개 문항으로 축약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신의 삶과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자아수용, 질적으로 높은 대인관계 능력인 긍정적 대인관계, 자신의 기준에 따

라 스스로 결정하는 자율성, 자기의 삶과 환경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환경에 대한 통제력, 삶의 목적과 의미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는 삶의 목적, 지속적인 개인의 발달과 성장에 대한 지각인 개인적 성장의 6개 심리적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전체 심리적 안녕감의 신뢰도 Cronbach' α 는 .94이었다.

양육 스트레스척도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Abidin(1990)이 개발한 부모양육스트레스 척도(Parenting Stress Index/Short Form: PSI/SF)를 서혜영(1992)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했다. 총 36문항으로, 각 문항은 1(거의 그렇지 않다)에서 5(매우 그렇다)의 Likert 5점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본 척도에서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크게 3가지 요인으로 나누어 측정하고 있는데 부모의 고통, 부모-자녀 역기능적인 상호작용,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이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의 전체 신뢰도 Cronbach' α 는 .93이었다.

자료분석

본 연구는 SPSS 18.0(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를 하고,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자료를 분석하였다. 첫째, 각 척도간의 관련성을 상관분석을 통해 알아보았고, 둘째, 아동의 장애유무에 따라 어머니의 불안, 양육태도, 심리적 안녕감, 양육 스트레스에서 차이가 있는 알아보기 위해 어머니의 불안, 심리적 안녕감은 일원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고 양육태도의 경우 다변량분산분석(MANOVA)을 실시하였다. 셋째, 일반아동과 장애아동 어머니의 불안, 양육태도, 심리적 안녕감이

표 3 일반/장애아동 어머니의 불안, 양육태도, 심리적 안녕감, 양육 스트레스의 상관분석결과 (N= 249)

	장애	1	2	3	4	5	6	7
일반								
1. 불안		1	-.17	-.25*	-.50**	-.26**	-.69**	.56**
2. 양육태도-애정적		-.46**	1	.03	.18	.31**	.24*	-.32**
3. 양육태도-통제적		-.30**	.07	1	.49**	-.20*	.14	-.18
4. 양육태도-거부적		-.43**	.40**	.40**	1	.05	.45**	-.54**
5. 양육태도-긍정적		-.50**	.54**	.10	.22	1	.39**	-.43**
6. 심리적 안녕감		-.79**	.57**	.27**	.47**	.64**	1	-.55**
7. 양육 스트레스		.64**	-.58**	-.29**	-.58**	-.50**	-.71**	1

* $p < .05$, ** $p < .01$, *** $p < .001$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방식을 이용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일반/장애아동 어머니의 주요 변인 간의 상관관계

일반/장애아동 어머니의 심리적 변인들과 양육 스트레스의 상관관계를 <표 3>에 제시하였다.

일반아동과 장애아동 어머니 모두 공통적으로 나온 결과를 보면, 불안의 경우 일반아동 어머니 ($r=.64, p<.01$)와 장애아동 어머니($r=.56, p<.01$) 모두 양육 스트레스와 정적 상관을 보였다. 양육태도에서는 일반아동 어머니와 장애아동 어머니 모두 애정적($r=-.58, p<.01/r=-.32, p<.01$), 거부적($r=-.58, p<.01/r=-.54, p<.01$), 긍정적($r=-.50, p<.01/r=-.43, p<.01$) 양육태도와 양육 스트레스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심리적 안녕감($r=-.71, p<.01/r=-.55, p<.01$)도 양육 스트레스와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일반아동 어머니와 장애아동 어머니 집단을 구분하여 살펴본 경우, 일반아동 집단에서는 양육 스

트레스가 통제적 양육태도와 부적 상관을 보였으나($r=-.29, p<.01$), 장애아동 집단에서는 유의미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아동과 장애아동 어머니의 불안, 양육태도, 심리적 안녕감, 양육 스트레스 비교분석

일반아동과 장애아동 어머니의 불안, 심리적 안녕감, 양육 스트레스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비교해 본 결과, 어머니의 불안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F(1, 247) = 3.78, ns$), 일반아동과 장애아동 두 그룹 간에 양육태도는 유의미한 차이가 검증되었다(Wilk's $\lambda = .93$; $F(1,247)= 4.71, p<.005, \eta_p^2 = .07$). 후속 추적연구로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장애아동 어머니 ($M = 16.13, SD = 2.60$)에 비해 일반아동 어머니 ($M = 17.29, SD = 2.51$)가 더 긍정적 양육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F(1, 247) = 12.32, p<.005$).

또한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F(1, 247) = 4.31, p <.05$)과 양육 스트레스($F(1, 247) = 22.25, p<.001$)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표 4 일반아동과 장애아동 어머니의 불안, 양육태도, 심리적 안녕감, 양육 스트레스 비교

		일반아동 (n=150)		장애아동 (n=99)		F
		M	SD	M	SD	
양육태도	불안	83.21	23.31	88.91	21.58	3.78
	애정적	18.53	2.69	18.55	2.46	.00
	통제적	14.42	2.52	14.96	3.03	2.33
	거부적	15.77	2.95	15.54	3.32	.35
	긍정적	17.29	2.51	16.13	2.60	12.32**
	심리적 안녕감	153.39	23.34	147.44	20.12	4.31*
	양육 스트레스	81.73	18.97	93.86	21.13	22.25***

다. 자세히 살펴보면,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은 장애아동 어머니($M = 147.44, SD = 20.12$) 보다 일반아동 어머니($M = 153.39, SD = 23.34$)의 심리적 안녕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 스트레스의 경우 장애아동 어머니($M = 93.86, SD = 21.13$)가 일반아동 어머니($M = 81.73, SD = 18.97$) 보다 양육 스트레스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는 <표 4>와 같다.

일반아동과 장애아동 어머니의 불안, 양육태도, 심리적 안녕감이 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불안, 양육태도, 심리적 안녕감이 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일반아동과 장애아동을 나누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6과 7 참고).

먼저 일반아동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알아보기 위해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불안은 양육 스트레스의 40.4%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1,148)=100.53, p < .001$]. 다음으로 애정적, 통제적, 거부적, 긍정적 양육태도를 추가하여 양육 스트레스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 결과 설명력은 19.3% 증가하여 양육태도는 양육 스트레스를 59.7%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5,144)=42.72, p < .001$]. 3차 회귀분석에서 심리적 안녕감을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설명력은 2.4% 증가하였고, 어머니의 불안, 양육태도, 심리적 안녕감은 양육 스트레스의

표 5 . 일반아동 어머니의 불안, 양육태도,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위계적 종다회귀분석결과(N=150)

종속변수	모형	독립변수	β	t	R^2	ΔR^2	F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1	불안	.636	10.026***	.404	.404	100.529***	
		불안	.312	4.603***				
	2	양육태도	애정적	-.235	-3.417**	.597	.193	42.718***
			통제적	-.044	-.739			
			거부적	-.304	-4.674***			
			긍정적	-.144	-2.140*			
	3	양육태도	불안	.153	1.792	.621	.024	39.029***
			애정적	-.199	-2.928**			
			통제적	-.036	-.630			
			거부적	-.268	-4.154***			
			긍정적	-.062	-.870			
			심리적 안녕감	-.297	-.2981**			

* $p < .05$, ** $p < .01$, *** $p < .001$

표 6 . 장애아동 어머니의 불안, 양육태도,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결과(N=150)

종속변수	모형	독립변수	β	t	R^2	ΔR^2	F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1	불안	.559	6.602***	.312	.312	43.581***	
		불안	.276	3.140**				
	2	양육태도	애정적	-.115	-1.476	.517	.205	19.730***
			통제적	.013	.149			
			거부적	-.370	-3.957***			
			긍정적	-.299	-3.624***			
	3	양육태도	불안	.209	1.945	.523	.006	16.667***
			애정적	-.107	-1.374			
			통제적	.008	.091			
			거부적	-.351	-3.685***			
			긍정적	-.277	-3.272**			
			심리적 안녕감	-.117	-1.081			

* $p < .05$, ** $p < .01$, *** $p < .001$

62.1%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6,143)=39.03$, $p<.001$).

다음으로 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알아보기 위해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불안은 양육 스트레스의 31.2%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1,96)=43.58$, $p<.001$). 다음으로 애정적, 통제적, 거부적, 긍정적 양육태도를 추가하여 양육 스트레스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 결과 설명력은 20.5% 증가 하여 양육태도는 양육 스트레스를 51.7%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5,92)=19.73$, $p<.001$). 3차 회귀분석에서 심리적 안녕감을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설명력은 0.6% 증가 하 였고, 어머니의 불안, 양육태도, 심리적 안녕감은 양육 스트레스의 52.3%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6,91)= 16.67$, $p<.001$).

종합하면 일반아동과 장애아동 어머니 모두에게서 어머니의 불안과 양육태도는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소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일반아동과 장애아동 어머니의 불안, 양육태도, 심리적 안녕감을 비교해보고 이들이 양육 스트레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일반아동과 장애아동 어머니의 불안, 양육태도, 심리적 안녕감, 양육 스트레스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어머니가 양육 스트레스를 지각하는 데 있어 아동의 변인보다 양육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머니의 심리적 변인과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일반아동과 장애아동 어머니 집단 모두 공통적으로 나온 결과로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불안과는 정적 상관을 보이고 애정적, 거부적, 긍정적 양육태도와 심리적 안녕감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는데 이는 아동의 장애유무에 상관없이 어머니의 불안이 높으면 양육 스트레스가 높으며, 양육태도가 애정적, 거부적, 긍정적 일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을수록 양육 스트레스는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신경증의 하위변인들 중 불안을 많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훨씬 높다고 보고한 길연하(1996)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며, 장애아동의 경우 어머니의 불안이 높아지면 양육 스트레스를 더 높게 지각한다는 손영지(2010)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또한 양육태도의 경우 어머니들이 애정적, 자율적 양육태도를 보일수록 양육 스트레스를 낮추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는 이지현(2010)의 연구결과를 일부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두 집단간의 차이점으로는 일반아동 어머니 집단에서는 양육 스트레스가 통제적 양육태도와 부적 상관을 보였으나, 장애아동 집단에서는 유의미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아동 어머니의 경우 권위적인 지시로 자녀에게 제한을 가하고 어머니의 의견을 강조함으로써 양육 스트레스를 덜 느끼게 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둘째, 일반아동과 장애아동 어머니의 불안, 양육태도, 심리적 안녕감, 양육 스트레스를 비교해 본 결과, 양육 스트레스, 긍정적 양육태도, 심리적 안녕감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장애아동 어머니가 일반아동 어머니에 비해 양육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장애아동 부모의 경우 자녀의 양육과 치료, 교육, 재활 등 장기간 가중되는 심리적 압박과 경제적 문제로 인해 사회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갖게되어 비장애아동 부모에 비해 2~3배 이상의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한다는 배광웅과 송상천(1986)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긍정적 양육태도와 심리적 안녕감의 경우 일반아동 어머니가 장애아동 어머니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어머니가 장애 자녀보다 비장애 자녀에게 더욱 애정적, 자율적으로 대하는 것으로 나타난 이영진(2008)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이는 장애아동의 부모가 일반아동 부모

에 비해 삶의 질 정도를 낮은 것으로 평가한 Bode 등(2000)의 연구결과와 일반아동 어머니가 장애아동 어머니에 비해 자아수용, 긍정적 대인관계, 자율성, 환경에 대한 통제력, 삶의 목적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최정아(2010)의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를 장애아동 어머니들은 자신감의 결여로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며, 강박적이며 아동을 대하는 기본적인 기술부족, 민감성 결여, 거부적 태도, 완벽주의적인 경향을 보인다는 정유경(2003)의 보고와 함께 고려해볼 때, 장애아동 어머니는 일반아동 어머니에 비해 여러 가지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게 됨으로써 긍정적인 측면의 심리적 안녕감이 낮아짐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셋째, 일반아동과 장애아동 어머니의 불안, 양육태도, 심리적 안녕감이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그 결과 일반아동 어머니의 불안은 양육 스트레스의 40.4%를 설명하였다. 다음으로 애정적, 통제적, 거부적, 긍정적 양육태도를 추가하여 설명력은 19.3% 증가하였고, 마지막으로 심리적 안녕감을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 설명력은 2.4% 증가하였다. 즉, 일반아동 어머니의 경우 어머니의 불안, 양육태도, 심리적 안녕감은 양육 스트레스에 62.1%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아동 어머니의 경우 어머니의 불안은 양육 스트레스의 31.2%를 설명하였고, 애정적, 통제적, 거부적, 긍정적 양육태도를 추가하여 알아본 결과 설명력은 20.5% 증가하였으며 심리적 안녕감을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 설명력은 0.6% 증가 하였다. 즉, 장애아동 어머니의 경우 어머니의 불안, 양육태도, 심리적 안녕감은 양육 스트레스의 52.3%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를 종합해 보면, 일반아동과 장애아동 어머니 모두에게서 어머니의 불안과 양육태도는 양육 스트레스를 설

명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아동과 장애아동 어머니 두 집단 모두 어머니의 불안의 경우 불안이 양육 스트레스와 서로 시간적으로 공통성이 있거나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의존적인 발달을 보인다는 Hock과 Schirtzinger(1992)의 결과를 지지하고, 양육태도의 경우 우리나라 부모들의 자녀양육태도가 부모-자녀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고 부모 자신의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소임을 지적한 황성숙(2011)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이러한 결과로 어머니의 긍정적·부정적 심리적인 변인이 아동의 장애유무에 상관없이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요소임을 인식하고,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해 어떠한 도움이 개입되어야 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본 연구가 지니는 함의는 일반아동 어머니와 장애아동 어머니를 비교해 봄으로써 아동의 장애여부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 하나라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불안, 양육태도, 심리적 안녕감을 고려하여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대처하고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불안 수준을 낮추고, 애정적이고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유지하고, 심리적 안녕감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심리내적인 자원 및 능력 강화를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심리증진 프로그램 혹은 부모교육 및 훈련 등이 매우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앞으로 이루어질 후속연구

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 지역에 위치한 어린이집과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여 실시된 것으로써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는데 제한점이 있다. 연구자가 거주하는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대상을 선정하였으므로 지역적, 문화적, 환경적인 요인이 고려되지 못하였다. 또한 연구 대상이 영·유아에 제한되어 있어 아동, 청소년을 연구대상으로 포함하지 못한 점도 제한점으로 들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아동 및 청소년을 포함하여 보다 다양한 아동의 연령층과 다양한 지역의 어머니를 대상에 적용하여 분석함으로써 보다 보편적인 결과를 얻게 되기를 기대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끼치는 어머니의 인구사회적인 변인들을 분석에 사용하지 않았으며, 장애유무에 따라 나누어 살펴보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에서 흔히 분석에 사용되었던 어머니의 연령과 같은 인구 사회적 변인과 직업유무, 가정의 월평균 수입, 종교 유무 등 사회·경제적 변인들이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관한 연구를 시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은 심리적인 변인 외에도 다양하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심리적인 변인과 함께 다양한 인구 사회적 변인들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고, 일반아동 어머니와 장애아동 어머니의 부모특성에 따라 결과에 미치는 영향력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나누어 탐색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통해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폭넓게 이해하여 다양한 해결책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사료된다.

셋째, 장애아동 어머니의 불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활발히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다. 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관련된 논문을 조사해보면 어머니의 우울, 양육태도, 애착유형, 대처방식, 생활만족도 등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장애아동 어머니의 불안에 따른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불안과 양육 스트레스 사이에 작용하는 매개변인, 혹은 불안과 다른 인구학적,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 변인들과 관련지어 연구를 해 봄으로써 장애아동 어머니의 심리상태에 대해 더욱 잘 이해될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일반아동과 장애아동의 부모교육 및 상담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현재의 부모교육 및 상담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형태인가’, ‘부모들의 정서적인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가’, ‘현 부모교육에 부모들은 대부분 만족하는가’, ‘부모의 요구를 실제로 반영하였는가’ 와 같은 부분들을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현재 일반아동과 장애아동 부모교육 및 상담은 우리나라의 교육 중심 문화에 맞춰 아동의 교육문제와 진로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에 비해 주양육자인 어머니의 심리적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교육과 상담은 드문 편이다. 이에 어머니의 심리적 문제에 초점을 맞춘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한다면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낮추고 더욱 긍정적인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길미연(2009). 만 3,4,5세 유아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길연하(1996). 성격특성에 따른 스트레스의 지각과 대처: 외향성과 신경증성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명소, 김혜원, 차경호(2001). 심리적 안녕감의 구성개념분석: 한국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2), 19-39.
- 김은숙(1990).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인숙(2007).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피학대 경험이 체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혁준, 이종신(2010). 통합보육시설의 장애아와 비장애아 어머니 역할행동 비교연구: 내외통제성, 심리적 안녕감, 우울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민옥기(2002). 특수아동 어머니와 일반아동 어머니의 스트레스 특징 비교.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영진(2004).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및 대처방식과 양육행동.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응임(1995). 영아-어머니 간의 애착유형과 그 관련변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배광웅, 송상천(1986). 장애아동 부모와 일반아동 부모의 스트레스 비교연구. 성지재활연구, 13-35.
- 백설아(2005). 장애유아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영숙(2007). 어머니의 자녀양육 스트레스와 양육 죄책감이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혜영(1992). 장애아 어머니의 적응과 사회적 지원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영지(2010).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양육행동간의 관계: 성격의 중재효과. 이화여자대학교

- 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민진(2010).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와 청소년 불안의 관계에서 부정적인 인지의 매개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2), 459-477.
- 양귀화(2001). 자폐아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 및 사회적지지 간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영주, 김경신, 김순옥(2001). 가족관계학. 교문사.
- 이삼연(1999). 장애아모의 스트레스 대처전략과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38, 180-205.
- 이영순(1990). 가족 스트레스, 자원 및 적응의 관계: 만성질병아동 어머니와 정상아동 어머니의 비교. 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주(1998). 장애아동 어머니와 정상아동 어머니의 자녀양육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 및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진(2008). 장애 자녀 어머니의 양육태도 분석.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현(2010).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양육 스트레스와 영아의 초기 어린이집 적응과의 관계. 삼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덕웅, 이창호, 탁진국(1993). Spielberger 상태-특성 불안 검사의 표준화. 學生指導研究, 10(1), 214-222.
- 이한우(1999). 장애아동과 일반아동 부모의 양육태도 및 양육 스트레스 비교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유경(2003). 장애아동 어머니와 정상아동 어머니의 자녀양육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 및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혜승(1996). 전업주부와 취업주부의 자녀양육스트레스 비교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정아(2010). 장애아동 부모와 일반아동 부모의 심리적 안녕감 비교. 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중옥(1982). 정신박약아에 대한 이해와 태도연구. 한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하수민, 윤종희(2002). 장애아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관한 생태학적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0(10), 191-200.
- 황성숙(2011).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양육 스트레스와 유아의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bidin, R. R.(1990). Parenting stressindex(PSI). Charlottesville, VA: PediatryPsychology Press.
- Barsch, R. H.(1968). *The parent of the handicapped child : the study of child-rearing practices*. Bibliography. 375-377.
- Becker, W. C.(1993). Consequence of Different kinds of parental discipline. In M. L. Hoffman & L. W. Hoffman(Eds.),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Vol. 1.(pp.169-208)*.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Bode, H., et al.(2000). Quality of life in familie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Developmental Medicine & Child Neurology 42*.
- Dunne, E., & Kettler, L.(2008). Grandparents raising grandchildren in Australia,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Welfare, 17*,

333-345.

- Hock, E. & Schirtzinger, M. B.(1992). Maternal separation anxiety : Its developmental course and relation to maternal mental health. *Psychosocial Developmental psychology*, 13
- Lonsdale, G.(1978). Family life with a handicapped child: The parents speak child care. *Health and Development*, 4.
- Lopata, H. Z.(1972). *Occupation: Housewif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Luster, T. & Okagaki, L. (1993). *Parenting: An ecological perspective*. Hillsdale, New Jersey: Lawrence Erlbaum.
- Ryff, C. D.(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6), 1069-1081.
- Ryff, C. D., & Keyes M. C. L. M.(1995).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revisit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4), 719-727.
- Schaefer E. S., Bell, R. Q., & Bagley, N.(1959). Development of maternal behavior research instrument,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95, 48-56.
- Singer, L., & Farkas, K. J.(1989). The impact of infant disability on maternal perception of stress. *Family Relations*, 39.
- Spielberger, C. D., Gorsuch, R. L., & Lushene, R. E.(1970). *Manual for the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Palo Alto, California : Consulting Psychologist Press.
- Stewart, S. H.(2000). *The interrelated effects of perceived social support, social pressure, social perception, and role related guilt on stress, life satisfaction and parental satisfaction of mothers with preschool children*. The heart of maternal dilemma, The Fielding Institute.
- Sullivan, H. S.(1953). *The interpersonal theory of psychiatry*. NY: Norton.

1차 원고 접수: 2013. 01. 15.

수정 원고 접수: 2013. 02. 25.

최종 게재 결정: 2013. 02. 26.

The Effects of the Maternal Anxiety, Parenting attitude & Psychological well-being on Parenting stress: A Comparative study between Mothers who have Children with and without Disabilities

Woo-kyung Seo Do-yeon Kim

Department of Counseling Psychology
Yongmoon Graduate School of Counseling Psychology

This study compares maternal anxiety, parenting attitude, psychological well-being, and parenting stress between mothers of children with and without disabilities, and investigates the effects of maternal anxiety, parenting attitud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n maternal parenting stress. The results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parenting stress and maternal anxiety in both groups of mothers, and a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affective, positive and rejective parenting attitude of affective, positive, rejective and controlled parenting attitude. Also, a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psychological well-being. Mothers of children without disabilities had higher positive parenting attitud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scores than mother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Mother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had higher parenting stress scores than mothers of without disabilities. Finally, it was shown that maternal anxiety and parenting attitude are the main factors influencing parenting stress in both groups of mothers.

*Keywords: anxiety, parenting attitude, psychological well-being, parenting stress,
mothers who have children with disabilities*